

“고부농민봉기는 동학혁명 출발점”

정읍시, 130주년 학술대회 개최
의도적 축소·역사 왜곡 중지
역사적 위상 재정립 등 토론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부농민봉기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출발점이자 혁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의도적 축소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국회에서 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학술대회에는 김준병·임오경·김준혁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및 유족, 동학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동학농민혁명에서 고부봉기가 가지는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제1발표는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발통문과 고부봉기의 상관성 연구’로, 사발통문 결의 내용은 고부농민봉기가 민란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혁명임을 증명했다.

이어 ‘고부동학농민혁명은 봉기인가 기포인가’라는 주제로 동의대학교 성강현 교수의 제2발표가 이어졌다. 성 교수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다.

제3발표는 경기대학교 조극훈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단절성과 연계성 연구’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 전개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시작점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김영진 교수의 ‘고부봉기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와 과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해 무장기포설을 주장한 연구자의 패러다임을 전복 시킬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 역사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부농민봉기의 의도적 축소가 동학농민혁명의 축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중지하고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위상 재정립에 다같이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출발점이자 혁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이라며 “정읍시는 혁명의 도시답게 고부농민봉기의 의도적 축소와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화물공영차고지 다음달부터 등록제

건설기계 등 무질서 이용에 영업용 화물차 주차난...이달부터 신청

남원시가 지난 2017년 조성한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화물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면서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와 자가용 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주차난을 겪어왔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하여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6월 한 달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보다 편리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귀농·귀촌 장려 ‘인구 유입’ 노력

인구늘리기 홍보대사 16명 위촉...정주 여건 등 홍보

고창군이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등을 ‘인구늘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외지 인구 유입에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임원과 읍면 지회장 등 16명을 고창 인구늘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젊은 시절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다 고창이 좋아 귀농·귀촌해 귀농멘토 및 재능기부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홍보대사들은 살기 좋은 고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과

의 화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창의 미래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 23일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귀농귀촌도시로 대상을 차지하며 귀농귀촌도시 부문 12년 연속 대상 수상의 대업을 이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앞장서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 감사하고 고창군도 귀농귀촌협의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놀이부터 상담까지...남원 육아 지원 거점 ‘자람뜰’

92억 투입 도서관·보육실 등 갖춰
교육·체험 기회...보육 컨설팅도



최경식(왼쪽 다섯번째) 남원시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 영유아놀이체험실을 둘러 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 육아환경의 거점이 될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이 최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건립 승인 및 10억원의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조산동 부지에 총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이다. 연면적 1624.5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주요시설은 1층에 안내대와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놀이체험실1, 요리실을 비롯해 2층에는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영유아놀이체험실2, 상담실, 시간제보육실이 들어섰고 3층에는 사무실이 꾸며졌다.

중정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이 차려졌으며 실내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공기정화식물을 곳곳에 식재해 영유아에게 자연 친화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성됐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보육정보와 상담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에는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 및 교육 진행 등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위탁운영체인 전북대산학협력단에서 영유아 발달 검사 등 전문가 상담 지원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남원시 영유아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놀이체험실과 프로그램의 경우, 남원시 거주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주요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센터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윤세진 씨 ‘예절과 다도’ 개인전 대상



정읍여성문화관 다도 수강생 윤세진(오른쪽)씨가 ‘전국 예절과 다도경연대회’에서 개인전 대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근 김포도박물관에서 열린 ‘전국 예절과 다도경연대회’에서 정읍여성문화관 다도 수강생 윤세진(66)가 개인전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정미희·장수희씨가 단체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읍여성문화관은 지난 2010년부터 전통예절 체험관을 개설하고 전통차의 유래와 차의 효능, 차 도구 명칭 차례 시연, 차 마시기 등 생활 속의 다례

예절을 배우고 차예절로 전통배례법과 공수법 방식예절, 인어예절 등 체험으로 전통문화의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상자를 지도해온 박형숙 강사는 “정읍여성문화관과 문화원에서 예절교육과 다도 교육을 꽤적한 교육환경조성에 힘써줘 매년 교육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